

2024 년 새해특별새벽기도회
(1/3/2024, 수)
일곱 교회에 보내신 편지: 에베소 교회(2)

찬양: 342(395)(너 시험을 당해)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 읽기: 요한계시록 2:2-3

말씀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자.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2) 에베소 교회가 칭찬 받은 내용들. 계 2:2-3 -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1)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행위”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에르가’는 요한복음이나 서신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사업’,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혹은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등을 뜻한다. 본문에서는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에베소 교회가 그 때 까지 나타내 보여준 신앙적인 행동들을 의미한다.

“수고”로 번역된 헬라어 ‘코폰’은 피를 흘릴 정도의 매우 심한 고통을 의미한다.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 ‘히포모넨’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보여준 신앙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계 1:9 에 기록되어 있다. 계 1:9 -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모습 중의 하나는 인내이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를 가져야 한다. 히 12:1 - 이렇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도는 특히 고난 중에 인내를 가지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살후 1:4 -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사랑하노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인내의 신앙과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내의 최고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살후 3:5 -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올 한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감으로 온전히 승리하자.

(2)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함. “악한 자들”(2 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용납하지 아니한 것”(2 절)은 죄악을 일삼고 타락한 사람들을 교회가 단호하게 처리한 것, 심지어 출교 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조금만 문제를 일으켜도 그들을 당장 쫓아내었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회개와 변화를 권면하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는 커녕 계속적으로 악행을 일삼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 죄악된 것과 타협하지 않고 교회와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교회와 성도는 교회됨의 본질, 신앙의 본질과 함께 영적 순결성을 지켜야 한다. 고후 11:2-3 - 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도 그러나 나는 3.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영적 순결성을 가진 신앙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간직한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3)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함.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2 절)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아닌데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며 다니는 사람들로서, 한 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이며 이단자들이다. 본문 6 절에는 “니콜라 당”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2 절에서 말하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은 “니콜라 당”일 가능성이 크다. “니콜라 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니콜라이톤’은 ‘정복’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니카’와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라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합성어로서 ‘백성을 정복하다’ 혹은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 뜻은 ‘발람’이라는 히브리어의 뜻과 일치한다. 계 2:14 에는 발람의 교훈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고 기록한다. 결국 니콜라 당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로 미혹할 뿐만 아니라 도덕폐기론을 주장하면서 무분별한 자유방임적 삶을 추구하여 타락하게 만든 자들로 볼 수 있다. 니콜라 당은 초기 교회를 매우 어지럽게 한 이단 집단으로서 2 세 말 경에 사라진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니콜라 당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였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본문은 특히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시험하여 거짓을 드러냈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숙한 영적 분별력을 알게 한다. 성숙한 신앙, 깨어 있는 영성의 특징 중의 하나는 분별이다. 영이 잠들어 있거나 혼미해 있으면 분별하지 못한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여 알아냈고 물리쳤다.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하고 무질서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리한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4)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함. 본문 3 절에서는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가 잘 견딤(인내)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음을 기록한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이다. 교회와 성도는 자신들의 인간적 이름, 목적,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견뎌야 한다. 살다보면 우리의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게 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한다. 그 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참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성도는 주님 때문에 참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김에 있어서, 그리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영육의 피곤함을 느끼며 무기력감에 사로잡히고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기력감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거나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져 쓰러지면 안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때때로 조금 피곤함을 느낄지라도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 능력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신다.

사 40:28-31 -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에베소 교회의 신앙적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도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영적 순결을 지키게 하시기를, 우리도 예리한 영적 분별력으로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으며, 우리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잘 견디고 피곤함으로 무기력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묵상하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에베소 교회가 칭찬 받은 내용으로 우리도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2.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패역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 땅을 장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며 복음의 문이 열려 죽어가는 이천만 동포들이 영적으로 해방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3.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시옵소서(시 19:14).